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돌입

전북도, 고창 운곡습지·부안 채석강 등 서해안 지질공원 11월 신청서 제출... 2022년 획득 목표

전북도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사회로 전환을 위한 합찬 발굴에 나선다.

도는 9일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채석강 등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7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 의향을 전달한 이후, 신규 지질명소 발굴과 학술적 가치 입증, 운영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 등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환경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전북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송부, 신청 절차를 마쳤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질명소의 국제적 가치 평가, 유네스코 관계자 현장실사 등 인증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채석강 등의 서면 심의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5~8월 사이에는 유네스코 관계자 2인의 현장실사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서면 심의와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증 여부는 2022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은 '2022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인증 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질공원 내 주요 생태·지질명소의 가시성 제고와 외국인 탐방객을 위한

외국어 해설판·인쇄물과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의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유네스코 평가 기준에 따른 역사·문화 등 비(非)지질자원을 연계한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 기반 구축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질공원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적극 참조해, 자연유산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인증 후 4년마다 진행되는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에도 철저히 대비해 도내 서해안 생태관광 국가 브랜드 지속 유지와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을 차질 없이 준비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생태문명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제주도와 경북 청송, 광주 무등산권, 경기·강원 한탄강 등 4개소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전세계적으로 44개국 16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국제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시설 훼손 행위 이외의 재산권 제한 등 규제는 없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새만금개발청-전북테크노파크-플라스포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9일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주)플라스포(대표 권오정)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산단 2공구(7,296㎡)에 200여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산업 융복합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창업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내년 8월에 착공해 202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연관기업 유치,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등의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산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플라스포는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 태양광·풍력용 인버터 등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새만금 산단 1공구(16,500㎡)에 111억원을 투자해 내년 1월에 착공, 6월에 제조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주)플라스포는 경기도 일산에 본사와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에 1, 2공장(연간 생산능력 300MW)을 가동 중이다.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 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은 물론, 그린수소 생산 등 한국형 뉴딜을 선도할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에너지융복합 종합지원센터와 플라스포가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전북도가 코로나19 막혀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활짝 열고 있다.

전북도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9일 도내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기회 제공을 위해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한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 앞서 사전에 해외 바이어에게 성장사다리 기업군의 정보 자료집을 제공하며, 바이어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매칭으로 수출계약의 성사율을 제고했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5개사,

중국 9개사 등 14개 해외 바이어와 전북도 통용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삼성농원 등 성장사다리 기업 13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구글 미트(Google Meet)와 줌(ZOOM) 등을 활용해 비대면 1:1 상담을 진행했고, 도는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위해 부스별로 통역사를 배치해 원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듯 해외 바이어 사전 수사 결과 주로 식료품, 생활용품, 가공식품, 주방용품 등 '홈노머' 관련 제품에 수요가 많아 해당 분야 제조기업의 수출계약 성사가 기대된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유호상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 출범

전북도, 중장기 발전계획·산업 발전방안 마련·실행 등 추진

전북도는 9일 도내 지자체와 자동차 연구·지원기관, 완성차 및 부품기업 대표업체들로 구성된 '전북도 상용차 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도는 상용차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혁신 성장을 이뤄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와 자동차 관련 연구·지원기관, 완성차 업체와 연관 부품기업들이 머리를 맞출 수 있는 협력기구를 구성했다.

이날 협의회는 도 정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대면행사는 취소하고 서면으로 개최했다.

전북도는 협의회를 통해 상용차뿐만 아니라 도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중장기 발전계획과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도내 완성차 업체 및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맞춤형 사업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출된 사업들은 협의회에 상정해 정책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예산 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정책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순서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의회는 전북도 자동차산업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발전방안을 완성해낼 예정이다.

또한, 도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전

북도 미래 자동차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차 전환 패러다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국내에 보급(누적)하고, 2024년 자율주행 레벨4(운행가능영역 내 자율주행(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필요없음)) 수준 차량 일부 상용화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산·새만금은 타타대우상용차와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익산·완주는 세계 최초 수소수용차 양산 공장인 현대차를 중심으로, 그리고 김제는 특장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용차 예타면제사업,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친환경 상용차·초소형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과 같이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미래차 관련 사업들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해 나갈 복안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애플이나 삼성처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면서 "각종 지원책을 모색해 전북도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부흥에 노력하겠다"며,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 성과공유회

전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권)은 9일 전북도 평생교육 사업 성과공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공유회는 올해 전북도와 타 지역에서 진행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4개 시·군 및 도내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성과공유회 주제인 '다시·다 같이 다시 시작'은 변화된 학습환경에 맞춰 최 새로운 평생학습 패러다임을 모색, 평생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타 시·도 우수사례로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선정된 광주 북구와 서울 은평구의 사례가 소개됐다.

광주 북구 국승희 평생교육사는 마을에서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과정을 설계하고 풀어나 '무릉학교'와 청년이 마을에서 감사 활동 또는 취·창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청년희망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일잇소'를 소개했다. 이어, 서울 은평구평생학습관 최미하 평생교육사는 문해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을 위한 보충학습지 및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시도와 변화된 교육활동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전북도내 평생학습의 현장 이야기를 3가지 주제로 엮은 동영상 시청하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영상인 '평생학습이 내 삶에 들어오면'에서는 평생학습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익산시 우리마을 이야기 사업과 남원시 한글학당의 문해교육 사례를 소개

했다.

두번째 영상인 '평생학습이 우리와 함께하면'에서는 도민의 근거리 평생학습을 위해 설치된 행복학습센터(익산, 군산)와 진흥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정읍)을 통해 제공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제2의 삶을 가꾸어가는 도민의 모습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으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을 엮은 '평생학습이 마을을 품으면'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더불어 삶을 일구며 마을을 가꾸어가는 학습동아리 사업(전주, 임실)과 마을 공동체 사업(완주, 고창, 무주)의 사례를 담았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영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긴장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편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컨설턴트 ○전주메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정읍시 공고 제2020-111호

분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법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관계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중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공고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위 치(소재지)	지목	기수	비고
전라북도 정읍시 흥동면 비룡리 산17-2일원	임야	2기	(추정기수)

2. 개장사유: 전통중장추정묘 발굴에 따른 유골 및 부장품 등 정밀분석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서남권 추모공원(전북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나. 안치방법: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다. 안치기간: 10년

6. 신고 처: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동학선양팀(☎ 063-539-5433)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분묘에 부착된 분묘번호 및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분묘와 의 관계증명서류(계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위의 분묘 의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정 읍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